

##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박 준 성                      허 성 호                      전 미 연                      정 태 연†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여성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갈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에서(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다(평균 연령 = 34, SD = 9.25, 평균 한국거주 = 4년, SD = 2.24). 이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 중,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25개의 응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3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문화적 차이와 적응상의 어려움들에는 정체성과 언어적 의사소통, 정치경제적, 관계적 및 성적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적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대처하는 방법 중에는 순응형, 도구형, 도피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직장 내 조선족 여성의 적응에 필요한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조선족 직장 여성, 한국사회, 문화차이, 적응상의 어려움, 대처유형

---

\*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중 하나로, 한민족(韓民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로 대체로 19세기 중엽부터 이민한 조선인이다. 1990년대 이후, 그들 중 혹은 그 후손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 tjung@cau.ac.kr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 온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실제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을 다인종 사회로 규정했다(인태정, 2009).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인종과 민족 간 갈등과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채정민, 2003; 황승연, 1997).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민 중의 한 집단이 조선족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소수민족이자 한국사회의 동포이다. 1992년에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이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취업 목적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였다(박준성, 전미연, 허성호, 리나, 정태연, 2009). 특히, 2007년 한국정부는 한중 수교 초기 조선족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조선족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했다(김화선, 2008).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민 수는 451,301명으로, 남성이 235,560명, 여성이 215,741명 명이었다(Korean Immigration Service, 2013).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국을 비롯한 25개 국가에서 이동해 온 이민족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선족은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적응 한계점에 도달하였거나 기대 이하의 처우로 인해 한국행을 기피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 유입의 감소현상은 이들이 경험하는 한국의 현실적인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으로 조선족에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 변화의 과정을 탐색해 본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필요한 대안책을 개

발하는데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실제 그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들이 겪는 적응상의 어려움은 주로 남한사회와 비교해서 조선족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것이고(Gao, 2011; Sharpes, Wang, 1997), 또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남한사람들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 때문이다(박준성 등, 2009). 조선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선족이 이주로 인해 경험하는 문화충격 속에서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측면에 주목해 왔다(김현미, 2009; 박형모, 문승태, 2008). 이처럼 적응을 주류문화에 동화로 보는 입장은 부적응적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용 능력 결핍이나 노력부족 등의 개인적 특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해 왔다(Ward, Bochner, Furnham, 2001; Dovidio, Gaertner, Saguy, 2007; Phinney, 1990). 이러한 입장은 주류사회와 비주류 집단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보고 문화적응의 복잡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그 대신 문화적응을 주류문화와 이주민의 원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가령, Berry(1997)는 주류사회 내 이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주자가 자신의 기존 문화를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주류사회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의 조합에 따라 문화적응전략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상호간 문화적응 모형(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Bourhis, Moïse, Perreault & Sénechal, 1997)에서도 특정 이주민 집단의 문화 적응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주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수이지만 기존의 연구들도 조선족이 겪는 적응 상의 어려움은 조선족의 원문화와 한국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물임을 시사하고 있다(신경희, 양성은, 2006; 김화선, 2008; 황승연, 1997). 이에 본 연구자들도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들이 직업장면에서 경험하는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남한사회와 비교해서 다른 조선족의 문화적 특수성과 그에 관련된 어려움을 살펴본 다음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겠다.

#### 조선족의 사회문적 특성과 한국사회와의 차이

남한사람과 비교해서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측면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Kim, 2006), 조선족은 현재 중국 국민이면서 조선 민족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들은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학교를 세워 한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왔고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모국어를 보전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늘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족의 두 정체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립하거나 맥락에 따라 우선시해야 할 정체성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동일시하는 국가로 무조건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는 어렵다(유명기, 2004; 김화선, 2008). 특히,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경우, 자신이 동일시하는 국가로 중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도 어렵고 실제 그러지도 않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나 남한사람으로부터 제도적인 차원에서조차도 자신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유명기, 2002). 가령, 그들은 남한에 입국하면서부터 같은 민족인 자신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 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세관에서부터 차별대우를 경험하였다. 대조적으로 남한사람들은 그들을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자신들과는 다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식해서 폄하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무시와 차별의 경험을 통해 조선족들은 자신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권숙인, 2008;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유명기, 2002). 따라서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의 정체성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집단을 선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특성과 그와 관련된 적응상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의 문제다.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사람과 비교해서 조선족의 또 다른 독특성은 그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라는 점이다.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언어의 전환(code-switching)인데, 이는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담화 중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의식·무의식적으로, 자동·비자동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일컫는다(Lyons, 1981).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민족의 문제가 제기될 때, 특정 민족에 속하고 있다는 의식을 보이기 위하여 코드-스위칭을 한다. 즉, 그 민족의 고유한 언어로 바꿔 말함으로써 특정 민족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다(McClure & Wentz, 1975).

같은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남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발음, 억양, 어휘, 맥락적 의미 등의 측면에서 이질화되어 왔다(장은영, 2011; 신경희, 양성은, 2006). 이러한 언어적 차이점은 남한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비록 민족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차별과 무시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이익섭, 1994).

조선족은 남한사람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다른데, 이는 주로 중국과 한국이 걸어온 근대사의 간극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 산업화를 거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남한사람들의 사고 또한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질화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해방전쟁을 경험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고 문화대혁명을 거쳐 비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통제적인 계획경제의 원리를 체질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태도 등에서 남한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문형진, 2008). 또한 이와 같은 정치 이념적 차이는 남한사람들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남한 사람들은 조선족을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강하게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귀옥, 2003).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족사회와 남한사회는 경제적인 수준과 경제구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09년 당시 일인당 평균 생산총액(GNP)은 3,009달러 정도 인데 반해 한국은 19,000달러가 넘었다. 이와 같은 물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노동관행

에서도 이 두 집단 간에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적어도 이념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로 노동하는 방식이 자본주의의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탈북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통일부, 2008), 일에 관한 자본주의 사회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나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만큼의 업무를 수행하면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한 역할수행에 대한 대가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상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남한사회의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취를 위해 목표에 대한 강한 동기를 요구하는 특성과는 이질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많은 양의 노동에 적응하기 힘들어 이주 초기에는 직업을 그만두는 일이 빈번했고 한국사람처럼 일하는 방식에 적응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렸다(통일부, 2008).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회의 출신인 조선족은 남한사회에서 육체노동 중심의 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들은 3D 업종을 기피하면서 남한사회에서 이 분야의 직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고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족은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조선족 남성들은 건설노무자로, 여성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파출부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Korean immigration service, 2009). 그들은 종종 고용주들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체류허가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조선족 여성들은 성매매와 같은 부적절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

우도 흔하였다(김귀옥, 2003; 황승연, 1997). 결과적으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에 비해 조선족들은 여러 수당과 및 의료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조선족 여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준비된, 위장결혼 등으로 돈 벌러 온, ‘못 사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란 담론이 지배적이었다(이무정, 강기정, 2007; 이해웅, 2005). 게다가 언어적인 적응 과정에서부터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조선족 여성들은 성적인 차별을 받기도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인신구금, 폭행,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는 조선족의 생산직 노동자, 성산업 유입 여성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성 차별적 임금과 대우,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부재를 비롯한 성희롱 및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산업에의 유인 및 성매매 강요와 확대 착취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다(김교숙, 2010; 노재철, 고준기, 2014).

##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적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남한의 문화를 중심으로 적응을 이해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정체성을 다루는 연구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민족정체성에 주안점을 두거나 새로운 정체성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문화에 가능한 한 빨리 동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

도 어휘나 문법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김현미, 2009). 즉, 한국인처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연구들도 조선족의 적응을 곧 주류문화에 동화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강해 한국인의 문화적 수용이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두 문화의 상호적인 입장에서 조선족의 적응상 어려움을 다룬 연구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신경희, 양승옥, 2006; 김화선, 2008), 한국사회로 이주해 온 조선족 여성은 상대적으로 조선적 남성에 비해 더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업적 장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령, 김화선(2008)의 연구에서는 조선족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하여 이중정체성을 위주로 설명하였고, 신경희와 양승옥(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관계의사에 관한 양자 간의 상호작용점을 강조하였으며, 이해웅(2005)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조선족 여성의 직장생활이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조선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가 이들의 문화적응 특히,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1) 정체성, 의사소통, 정치

경제적 측면, 그리고 대인관계와 성적 측면에서의 문화차이와 그와 관련해서 경험하는 적응상의 어려움이나 차별 그리고 (2)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알아볼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연구대상

한국에서 조선족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34세(SD = 9.25)이고, 한국체류기간은 평균 4년(SD = 2.24)이었으며 국적취득을 한 여성은 2명이었다. 그들의 월수입은 평균 140만원(SD = 43.85)이었다(표 1 참고).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자신에게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

(2009 당시)

번호	나이	가족 관계	한국에서 거주형태	학력	직업	월급	결혼 상태	체류 기간
1	47	남편, 딸	독거	고졸	식당 조리원	140만원	기혼	5년
2	46	남편, 딸	남편	?	식당 조리원	235만원	기혼	1년
3	41	남편, 딸	남편	중졸	식당 종업원	200만원	기혼	4년
4	28	어머니, 오빠, 남편	남편	전문대졸	식당 종업원	140만원	기혼	1년
5	33	언니	독거	중퇴	다방 종업원	200만원	이혼	5년
6	56	남편, 아들 2	남편	중졸	식당 종업원	?	기혼	9년
7	36	부모, 언니, 여동생	남편, 딸	대졸	학습지 교사	130만원	기혼	8년
8	43	부모, 오빠, 아들	독거	?	식당 종업원	100만원	이혼	3년
9	26	부모, 여동생	독거	?	식당 종업원	120만원	미혼	4년
10	27	부모	어머니	고퇴	식당 종업원	80만원	미혼	6년
11	31	아버지, 오빠	시어머니, 남편, 아들	대학원졸	중국어 강사	100만원	기혼	3년
12	32	남편	남편	대졸	판매직	120만원	기혼	8년
13	39	남편, 아들, 딸	독거	전문대졸	판매직	120만원	기혼	5년
14	26	부모	부모	고졸	무역	170만원	미혼	3년
15	26	부모	독거	전문대졸	판매직	150만원	미혼	4년
16	26	부모	독거	대졸	경리	?	미혼	4년
17	26	부모, 오빠	독거	대졸	판매직	100만원	미혼	4년

주. 응답자 중에서 응답을 회피한 경우는 물음표(?)로 남겨놓았다.

학력은 중국생활에서의 학력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갈등상황을 만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한국생활에서 적응”, 등).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 비밀보장, 면담내용의 학술적 이용 등을 설명한 후 연구참가와 관련하여 동의를 얻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8개월간 각 참가자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각자의 직장 내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는 않았는데, 참여자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그 내용을 문서화했는데, 그 분량은 참가자 당 A4 용지로 약 8매~10매 정도였다.

#### 자료분석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 자료를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Giorgi(1985)는 현상학적 분석에서 기술(description)이 이론적 설명과는 별개로 생생한 실제 경험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선족 여성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핵심을 두어 인터뷰에서 나타난 축어록을 위주로 하되 분석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구분한 유형이나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학술적인 용어로 전환하여 체험의 일반적 의미구조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연구대상자들과 동일시하여 전반적인 느낌을 얻을 때까지 필사된 모든 축어록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거쳤다. 둘

째, 개별 축어록으로부터 조선족 여성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 혹은 문장을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도출하였다. 셋째, 유의미한 어구나 문장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쳤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 단위들은 상위 구성요소로 유목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요소들을 문화적 차이 및 적응상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대처유형 순서로 분류한 다음, 각각에 적합한 축어록의 일부나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 결 과

면담을 통해 얻은 17개의 축어록을 본 연구진이 분석하여 최종 225개의 의미 있는 어구나 문장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어구나 문장을 학술적인 용어로 22개의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8개의 하위범주로 유목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성, 의사소통, 정치경제적 측면 그리고 대인관계적 및 성적 측면에서 나타난 문화적 차이와 그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유형으로 순응형, 도구형, 도피형 등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표 2 참고).

#### 문화적 차이와 적응상의 어려움들

##### 정체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한국인이라는 단일한 인식보다는 중국인이며 한국민족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언급하는

표 2. 조선족 여성의 문화적응 범주

범주	하위범주	하위구성요소
문화적 차이	정체성	중국과 관련된 국가정체성 및 민족정체성의 혼란
	언어적 의사소통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적 측면과 외국어와 외래어의 어려움
	정치경제	정치 및 경제 구조의 차이
	대인관계	관계형성의 어려움, 성적 차별 및 폭력
대처 유형	순응형	자기이해, 의사소통의 발전, 문화적 적응
	도구형	내적 고통, 경제적 추구
	회피형	고용불안정, 중국으로 돌아가고자 함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여러 어려움과 차별을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 중 7번과 11번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국가정체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면담과정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자신의 가족이 아직 중국에 남아 있다는 점이 그들의 국가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족만큼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차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항상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여기 국적이 없으니까 여기 장기적으로 안 있을 거니까. 중국에 가족이 다 있으니까.(사례 6)

난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중국인으로 말이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외국인(중국인)이라고 생각해.(사례 5)

중국에서도 대우는 못 받아요. 예를 들자면 자신의 호적지에서 시험을 봐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족이 편한 쪽이나 우월한 쪽으로 정책이 되어 있어요. 소수민족 정책으로는 해준다, 해준다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사례 11)

동시에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을 한민족으로 보고했다. 이와 같은 민족정체성은 민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을 통해서나 중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세대를 통해 학습된 결과일 수 있다. 더욱이 참가자들은 여전히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적인 끈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고려인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족 및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유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한민족 역사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나라 같은 민족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랑 북한이랑 고려인들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 같은 민족 이었었구나’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어



요.(사례 5)

글쎄요 뿌리는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중략) 북한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국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고려인 같은 경우도 만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냥 어느 나라에 속해있든지 불문하고 민족은 한민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사례 9)

현재 조선족 인구가 급속히 줄어 조선족 학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대도시 부근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조선족 학교가 아닌, 한족학교로 교육을 받아서 조선족의 문화나 언어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사례 7)

이와 같이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을 남한사람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었다.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체험하고 있었다. 더구나 자신들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제약당하는 부분과 불편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회원가입 시에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가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사례 7)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는데 영어로 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선글로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권에 있는 영어로 써야한다고. 여권에는 또 제 한자이름도 있어요. 여권에는 영어랑 한자가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들이 뭐 맨날 동포요 조선족을 위해 조국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국도 아니잖아요. 그냥 고국이지. 근데 한국에서는 내 이름도 못 쓰잖아요.(사례 13)

한국에 가면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심할 것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고 친구들과 같은 느낌이에요. 일본사람에게도 이렇게 까지는 대하지 않던데 조선족이니까 더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착하기 힘들고 적응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상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깐 내가 왜 이려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요.(사례 4)

#### 언어적 의사소통

전반적으로 조선족 여성들은 남한사람들과 언어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남한에서 실제 생활할 때는 언어적인 이질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사소통에서의 이중 언어생활을 하는 특징도 보였고 언어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과 같은 사설기관에서 남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언어는 중요한 이유였

다. 기본적인 언어활동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조선어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또 학교 교육에서 조선족은 조선족 학교가 따로 있어서 조선족끼리 다닙니다. 현재 딸도 조선족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사례 2)

일단 남편이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 회를 뜨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언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중략) 그리고 한국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의사소통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사례 4)

하지만 혼자 일을 하거나 타인과 공동의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상 언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특히, 한국어에는 외래어가 많고 급격히 만들어지는 신조어에 대해서 이들이 배운 언어로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어나 외래어가 어렵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 영어를 많이 쓰다보니까 못 알아들어서 불편하기도 했고 못 들어봤던 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들은 어렵습니다.(사례 1)

레스토랑에서 서빙 했거든요. 음, 양식 집인데요. 스테이크 나오고 주스 나오고, 칵테일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양식집에 가면 그 스테이크 뭐 스파게티 이런 거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많이 접하지도 않고, 우리 거기에는 중국어로 표기가 되거든요. (중략) 근데 여기 와서 그걸 딱 접하고 나니 ‘와 이 외래어를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난점이었어요.(사례 9)

아울러 그들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코드-스위칭을 활용하고 있었다. 가령,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한국어의 몰랐던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남한사람들과 다른 말투가 차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를 경험했고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

편할 때는 중국말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중국말을 하면 옆에서 하지 말라고, 중국인이니 중국말 하는데 뭐가 어째서 그런가 싶었는데 살다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가요. 왜 그래야 되는지.(사례 15)

한국사람들, 길안내도 잘해주고 한국에서는 말이 잘 통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투가 틀리잖아요. 누구든지 조선족 말투를 들으면 쌀쌀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조선족 말투를 듣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물건을 주더라고요. (중략) 할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장 할머니는 한국사람들은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면 화안내고 잘 해주던데요. 그리고 제가 속초에 갈일이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러요. 버스 기사 분에게 “이 버스가 속초 가는 거 맞냐고 물어

보니까 버스기사분이 말투 듣더니 소리를 지르며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모르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내릴 때 보니 기사분이 먼저 밖에 나가 손님들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사례 8)

중국에서 한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다시 배웠는데요. 잘 안되더라고요. 집에 가면 계속 중국어를 하니깐. 그래서 중국에서 있을 때 한국 드라마 본 거죠. 그 때부터 드라마 보기 시작한 거죠. 2004년도부터. 전 집에서 중국어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중국어. 할아버지도 공무원 쪽으로 일하시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 중국어로 얘기한 거죠. 처음 말 배우면서 ‘내가 왜왔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수업 말고 그냥 한국어학원 다닐 때요.(사례 16)

### 정치경제적 측면

조선족 여성은 한국에서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여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화차이의 존재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김교숙, 2010; 박준성 등, 2009; 이광규, 201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측면과 관련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지향하지만 한국은 개인주의 성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을 언급하거나 이것이 한국에서의 적용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참가자는 많지 않았다. 반면 사회주의적 시스템에서의 노동의 규범이 한국사회의 그것과 다

른 점에 더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다른 게 중국에서는 원래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안해도 월급이 진짜 일 한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중국은 회사에 들어가면 아주 공무원이랑 비슷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하루 가서 차 마시고 신문보고 하면 그냥 월급 나오고. 한국은 너무 개인주의가 심한편이에요.(사례 12)

조선족 여성이 그들과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 및 그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측면이 경제적인 측면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대다수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보다 돈을 벌기 쉬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보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한국에 간다고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 친구들이 매우 기뻐해주었습니다. 또,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여서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주변사람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섭섭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저축도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사례 1)

중국보다 한국이 자유가 발달해서 돈벌이가 훨씬 나왔기 때문에 두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왔어. (중략) 지금

은 중국도 많이 변했어. 물가도 이제는 많이 오르고, 한국처럼 사교육비가 엄청나. 그래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지. 돈벌이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으니까. 나도 그래서 온 거니까.(사례 6)

그러나 조선족 여성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문화적 차이 및 차별을 경험했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치중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조선족들보다 상대적으로 집약적이고 장기 업무를 당연시 여기는데, 이것이 조선족 여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요. 저희 교포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통 3D 업종, 힘든 거 더러운 거, 현장 일은 제일 힘든 거예요.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은 회사, 아님 남자들은 현장, 약간 좀 배운 사람은 강사, 무역회사 그런 쪽으로 가고,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은 뭐 가정부, 식당 이런 일하고.(사례 12)

중국에서는 여행사에서 회계 일을 했는데 업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이곳보다는 짧았어요. 그래서 일 외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도 풀었죠. 한국에 와서 이곳에서의 직장생활은 그 중에서도 하루 12시간동안 일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는 점과 자기만의 시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고.(사례 4)

조선족 여성들은 같은 직업 공간에서도 업무적으로 과중하거나 남한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한 경우는 근무시간을 늘여도 제도로 쳐주지 않거나 급료를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도 식당에서 일하거나 어려운 일이 많고 월급이 적으니까요. 한국인에 비해서 월급이 적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끔씩 먹는 부분에서 많이 무시를 한다. 한국사람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그지 같이 중국에서 굶었냐’고 말하면서 무시해 버린다.(사례 2)

서빙할 때 힘들었던 건 좀 피곤하죠. 5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방학에는 거의 열 두 시간 씩 일하고. 추가 수당은 없고 굳이 이런 대우받으면서 일해야 되는지.(사례 17)

일을 할 때 내가 말투도 어눌하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손님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 정이 떨어지고, 식당 식구들이나 나를 무시하고 월급도 주지 않았던 사장님을 생각하면 한국이 싫을 때도 있다.(사례 3)

게다가 대다수의 직업이 임시직이고 단순노동직 이다보니 복리후생의 혜택이 거의 없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일부 실직의 고충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외국인을 위한 실업급여 같은 제도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은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하고 병원비를 지불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가 나왔어요. 제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인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지불해야 했어요. (중략) 4대 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요. 복지관이나 직장에도 도움을 받은 적 없어요.(사례 4)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된 후에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중략)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4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못해서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이득에 대해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사례 7)

#### 대인관계적 및 성적 측면

조선족 여성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대인관계 관련해서 많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에서 나이를 따지는 한국인의 풍토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편했다고 보고하는 사례도 보였다.

한국은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없거든. 없는 것 보다는 많이 따지지 않아요. 뭐 선배가 만약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말을 들어야 되고, 한국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거든요. 중국은 나이 뭐 차이 나도 친구처럼 지내고, 여기는 뭐 선배, 후배 많이 따지거든요. 같은 나이도 따지니까.(사례 12)

중국도 선후배가 있는데 이정도로 한국처럼 심하게 안 해요. 한국은 짜증날 정도로 심하게 해요. 처음에는 직장에서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단 직원이라 했는데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일은 편하게 했어요, 좀.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제가 모르는 것도 잘 도와줬고.(사례 13)

일을 하면서 직장 내 성차별 행동도 조선족에게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은근슬쩍 자극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직원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를 집중해서 하다가 커피 타와 하는 소리에 집중이 분산돼서 짜증이 나요. 성희롱 같은 것 저희 회사 많아요. 근데 저희 회사 저를 여자라고 안 봐서요. 저도 남자로 안 봐요. 그냥 같이 받아쳐줘요. 근데 만약에 성희롱 당했다 이러면 점점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아예 받아쳐주거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창피를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사례 14)

실장님이란 남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작은 회사가 되가지고요. 거기서 제가 알바생으로 다녔는데, 너무 직접 거리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도 (신체 접촉하는 행동을 하며) 이렇게 해서 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상하다 그랬어요.(사례 16)

그래도 어디가도 그런 일은 다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일본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직원 가슴도 만지고. 지금도 계속 와요. 예전에는 정말 그 직원이 신입인데 할아버지가 막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다음날로 안 왔어요. 그래서 점장님이 일본 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했더니 일본 분은 자기는 그 뜻이 아닌데 그냥 습관이라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자주 와요. 근데 여자 직원들이 옆으로 안가죠.(사례 17)

#### 대처유형

참가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문화 차이 및 문화적응에 따른 어려움 혹은 차별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그 유형으로 순응형, 도구형, 도피형 등 3가지가 있었다.

#### 순응형

문화적응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순응형(사례 3, 7, 11, 14)으로 분류한 참가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주도적인 전략의 사용,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유형 등의 특징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이 한국인과 다르고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경향이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구조라는 이해의 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당연히 중국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이야, 중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한국은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를 중국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중략) 정체성 때문이라도 원래 내 몸 안에 흐르던 피는 한국이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이지 중국 피는 내 몸 안에 하나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 민족성은 한민족이에요.(사례 7)

OO에서 중국어 강사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어요. OO은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고 외국인강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초빙강사로는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중략) 부모님들과의 개인 면담의 쉬운 의사소통 효율을 위해 미리 조선족이라고 밝혔을 시에도 오히려 부모님들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반겨 주셔서 특별히 갈등은 없었어요.(사례 11)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였다. 가령, 아이가 있는 한국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같은 ‘엄마’라는 공통성을 상호작용의 코드로 활용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가족의 문제를 같은 식구라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면담에서 중국/한국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경우는 적었고 대다수는 마치 자신만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주위의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특히 제 아이와 같은 또래의 자녀가 있는 한국사람들인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아이양육정보는 물론이고 한국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사례 7)

한국에서 계속 정착할 생각이죠. (중략) 가족의 정을 느끼고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좋고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랑 서로 맞지 않은 점이 있으면 말하고 그때, 그때 푸는 편이거든요. 남편도 제사 때나 설 때 집안 일을 많이 도와주고요. 중국에서는 온 가족이 다 모여 살았던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고 아이도 있고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사례 11)

문화적 적응을 위해 순응형의 조선족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을 도피하거나 우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부딪히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거나 사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고 적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련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직장 동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국 사람에 대한 더럽다는 인식, 못한 나라라는 인식, 식당의 서비스 등의 문화 차이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그러다가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회피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한국에 온 만큼 최대한 한국 문화

에 익숙해지려고 많이 노력하였다.(사례 3)

딸아이를 놀이방에 보내면서 보육료 지원을 대략 20만 원정도 받은 적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들에 대해 도움 받음으로써 딸아이 놀이방 교육비가 한 달에 40만원이었는데 총 비용에서 반액을 정부 측에서 지원 받은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었어요. (중략) 복지관에 중국인 친구와 함께 갔었는데, 중국인 친구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잘 안 가려고 해요. 접수하는 것도 어렵고 말이 잘 안 되어서 외국인으로 대하는 것이 힘든데, 저는 까다롭다고 해도 다 신청해 봐요.(사례 7)

근데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중략) 저는 항상 직장 들어가면 언니들이랑 좀 친해지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친해지고 하다가 말 같은 경우 듣기 나쁠 때 이해 좀 하라고 내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사례 14)

### 도구형

도구형(사례 1, 2, 5, 6, 9, 13, 16, 17)의 참가자들은 한국에서의 적응적 삶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한국인들의 차별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해서 그 상황을 참거나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의 참가자들은 동료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면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참기를 선호하였다. 정서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기분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자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우리는 교포라고 생각해서 떠들지도 못하고 참고 있죠.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 말하게 되도 해결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죠.(사례 2)

그냥 그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고, 저도 뭐 나름대로 노력하고 했어야 했는데, 저한테도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냥 제가 빨리빨리 배웠어야 됐는데, 빨리 빨리 배우지를 못했구나. 뭐 그런 자책감도 어지간히 있어요. 아! 그리고 화났을 때는 그냥 화장실가서 막 한숨 확 쉬고, 참기도 하고 그냥 힘내자! 그런 식으로 해요.(사례 9)

이 유형의 조선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고 견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돈을 모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는 곳에서 밥도 다 주니깐, 그리고 돈도 많이 주니깐 여기에 있으려고 해요. 결혼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정착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혼 안하면 내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죠. 나는 돈 벌고 돌아갈 거예요.(사례 5)

나는 여자이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옮기는 일 없이 10년 동안 계속 이 곳에 있으면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한국 이미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여자들은 가정집으로 가거나 식당일을 하는데 내 주위에서는 힘들거나 그런 거 없어. 잘 지내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늦어도 5년 뒤에는 돌아갈 생각이야.(사례 6)

### 도피형

도피형(사례 4, 8, 10, 12, 15)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차별을 겪은 후 이직을 선호하거나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적인 방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목표도 불분명하였다. 심한 경우는 하루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일을 한 경력 기간이 짧다보니 숙련도면에서 많이 떨어져 적응을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다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것도 몇 개월 해봤어요. 오래는 안하고 몇 개월 하고. 그냥 그 정도 했던 거 같아요. 편의점에서 알바 해 봤고요. 그러니까 일 경험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일을 할 때 제가 제일 오래 일했던 게 일 년 반 정도 했어요. 또 일 년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몇 개월 동안.. 오래 하지 않은 게 저는 일단 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중략)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 같아요. 몇 년째 지금. 내가 앞으로 뭘 도대체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지금 딱히 모르겠어요.(사례 10)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유 그냥 그만 뒀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적응 못하니까 그 때 식당 관두면서 교회 통해서 회사로 옮긴 거죠. (중략) 식당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훨씬 마음이 편하죠. 회사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고 식당에서는 별별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또 그런 것 싫어해요.(사례 12)

한국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지 못한 이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중국으로 속히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중국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고 중국에 가서는 한국으로 다시 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 할 때 정이 든 적은 없고 일하면서 무시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곳에서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아요. 정도 떨어지고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사례 4)

한국에서는 일을 하면서 많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힘들고, 무시하고.. 다른 좋은 한국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제중인 남자가 있습

니다. 이 사람은 저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사례 8)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들이 직장에서 문화적응 관련 하는 경험들과 문제에 대처하는 적응유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정체성과 언어적 의사소통, 정치경제적 측면 그리고 대인관계와 성적 측면에서 여러 문화적 차이와 적응상의 어려움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선족 여성들의 대처유형을 분석하여 순응형, 도구형 그리고 도피형을 도출하였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발견을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먼저,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제안한 주류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김현미, 2009; 박준성 등, 2009)보다는 중국과 남한문화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처럼(김경신, 2006),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인과 한민족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들은 이 두 집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주어진 문화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특정 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장은영, 2011; McClure & Wentz, 1975),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보다는 경제시스템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더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그에 따라 자신들이 3D와 같은 열악한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노동시간이나 임금과 같은 노동규범이 두 문화 간에 크게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한국문화가 조선족의 문화보다 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무조건 선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맥락 속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사람들이 조선족 여성을 외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권숙인, 2008; 문형진, 2008; 유명기, 2002; 이익섭, 1994). 여기에는 남한사람들이 그들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인식하는 점도 들어있었고 종종 차별적 행동으로 연결되었다(김교숙, 2010;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조선족 여성들은 구체적인 업무관계 속에서도 여러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은 한국에서 3D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Korean immigration service, 2009; 2013). 그러다보니 보수나 근무시간, 근무지원 등의 근무조건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들

은 임금체불과 과도한 노동시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제도적으로도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인데, 사실 한국사회가 조선족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차별이나 문제점이기도 하다(인태정, 2009). 가령, 최저생계비 지원은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이들이 3개월 이상 반드시 체류할 것을 증명하는 직장 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분위기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관계를 선호하기에 기업은 이들의 체류확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4대 보험에서도 제외하여 차별하고 있다.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사람이 자신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류의식 속에서 남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우를 기대했는데 실상은 한국사회가 이민족 취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경험하였다. 남한사회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족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성적 지위 때문에 직장에서 성적인 추행 등 성적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의 지위를 가진 조선족 여성이 겪는 이러한 성적 차별은 그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김교숙, 2010).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적응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크게 세 가지의 적응유형을 드러냈다. 목표의식이 부족하거나 어려움과 차별의 상황을 벗어나는데

것에 몰입해 있는 회피형, 돈을 벌겠다는 목표달성만을 위해서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도구형과 달리 순응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이 남한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였다.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주류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에게 요구되는 특성이다(김현미, 2009; 신성자, 미치도칠, 오통도람, 2012). 그래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가령,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오옥선, 2014; 이무영, 강기정, 2007).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폭넓게 도구형이나 도피형의 조선족 여성들에게도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때로 부적절한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최선은 아니다. 대신에 자신의 이중적인 정체성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에 필요한 코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모드를 넘나드는 코드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중국/한국 코드가 긍정적인 적응 기재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도구형과 도피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한국 코드에 기반하여 한국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파악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순응형의 사람들은 중국/한국 코드보다 업무자체 특성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코드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이 특정 맥락에 적합한 의사소통 코드를 개발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화의 안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화적응은 행동의 단순한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행동양식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숙련도에 있다. 이에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문제 해결의지를 강화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특히, 한국문화가 갖는 장기지향적인 행동 특성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회적 승인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회적 신뢰감이나 내집단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이들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Hofstede, 2005), 장기적인 적응 과정을 통해 주도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 적응상의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이러한 상황

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몇몇 대처유형을 풍부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밝혔다. 본 연구에 참가한 17명의 조선족 여성들은 어느 정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교사 직업을 가진 2명의 대상자는 모두 한국사회에 상당히 적응적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직업군에 따른 적응상의 차이 혹은 동일 직업군 내 적응 유형의 다양성을 밝히는 연구를 한다면 직업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그리고 문화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 등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실태를 폭넓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건설의 초석이 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숙인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국제지역연구, 17(4), 33-60.
- 김경신 (2006). 한국여성과 조선족여성의 가족 가치관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11(3), 23-50.
- 김경신, 이선미 (2007).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5(2), 119-131.
- 김교숙 (2010). 외국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실과 과제. 법학연구, 21, 3-24.
- 김귀옥 (2003). 경계 안팎의 여성 조선족: 삶의 특성과 사회인식, 재외한인연구, 14(1), 25-76.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42(2), 35-75.
-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 김화선 (2008). 다문화시대,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망. 비교한국학, 16(2), 251-272.
- 노재철, 고준기 (2014).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135-147.
- 문형진 (2008).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1), 131-156.
- 박은미 (2009). 새터민 대학생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1(1), 51-60.
- 박준성, 전미연, 허성호, 리 나, 정태연 (2009).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의 이주동기와 일-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30-431.
- 박행모, 문승태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시대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2), 69-91.
- 신경희, 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신성자, 미치도칠, 오통도람 (2012). 재한 몽골 합법·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직업만족도, 사회적지지,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 향: 희망의 매개효과와 체류자격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435-462.
- 오옥선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45-65.
-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101-127.
- 이광규 (2011).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고려인 연구 시안. 재외한인연구, 23, 349-364.
- 이득춘 (1994). 이중언어학 관계 논문: 중국의 한중 이중언어 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 11, 59-70.
- 이무영, 강기정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2(2), 29-44.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해응 (2005).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태정 (2009). The study on conscious research of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city and Kyungsangnamdo toward ethno-racial distances and cultural diversity.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장은영 (2011).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이중언어학, 47, 139-16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일부 (2008). 2008년 통일부백서. 서울: 통일부.
- 황승연 (1997).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아태연구, 1, 183-208.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ourhis, R. Y., Moïse, L. C., Perreault, S., & Sénech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369-386.
- Dovidio, J. F., S. L. Gaertner, & T. Saguy.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 296-330.
- Gao, F. (2011). Language and power: Korean-Chinese students' language attitude and practice.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30(6), 525-534.
- Giorgi, A. (1985).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 Korean Immigration Service. (2009). 이주통계. 법무부.
- Korean Immigration Service. (2013). 이주통계. 법무부.
- Lee, S. (2012). A study on how to teach tense to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15(1), 221-234.
- Lyons, J. (1981). *Language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McClure, E. & J. Wentz. (1975). *Functions of code-switching among Mexican-American children*. IL: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Phinney, J.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Sharpes, D. & Wang, X. (1997). Adolescent self-concept among Han, Mongolian, and Korean Chinese. *Adolescence*, 32(128), 913-924.
- Ward, C., S. Bochner, & A. Furnham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tledge.
- 논문 투고일 : 2014. 10. 06  
1 차 심사일 : 2014. 11. 07  
게재 확정일 : 2014. 12. 02

## The Cultural Adaptation of Korean-Chinese Working Women to South Korea

Junseong Park<sup>1)</sup>      Sung-Ho Hu<sup>2)</sup>      Miyoun Jun<sup>2)</sup>      Taeyun Jung<sup>2)</sup>

<sup>1)</sup>Dep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Nazarene University

<sup>2)</sup>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ultural differences and related difficulties which Korean-Chinese women in Korean society experience at work and the different styles of their cultural adaptation. For this, semi-structured interviews consisting of questions related to these issues were conducted on 17 Korean-Chinese wom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verage age: 34, SD = 9.25, average stay in Korea = 4 years, SD = 2.24). After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based on Giorgi's(1985) method of phenomenological analysis, a total of 225 significant statements were found and those were grouped into 23 subcategories, which were then grouped again into 9 categories. Cultural differences and related difficulties appeared in identity, verbal communication,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and relational and sexual affairs. It was also revealed that Korean-Chinese women adapted in the three ways of Active, Passive, and Avoident. Lastly, various social actions that can aid the adaptation of Korean-Chinese women to Korea based o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Chinese working women, Korean society, cultural differences, adaptive difficulties, and coping styles